

“스마트워치·샤프 NO... 방역절차 추가돼 여유롭게 도착을”

‘수능 디데이’ 체크 리스트

소지 불가 물품 목록 확인
마스크·신분증·수험표 필수
4교시 응시방법 숙지 중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세 번째 맞는 올해 수능은 확진 수험생들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에서 동일하게 시작되며,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꼭 가져가야 될 것과 절대 가져가면 안 될 것

수능은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반입 물품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오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꼭 챙겨야 할 물품과 가져가면 안 되는 물품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필수라고 당부했다.

필수 준비물로는 ▲수험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마스크(KF94, KF80, KF-AD 등) 등이 있다. 수험생들은 입실부터 퇴실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KF94, KF80, KF-AD 등)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분실 및 오염에 대비해 여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6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찾은 수험생이 선생님과 인사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분을 준비해 가면 좋다.

특히 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하는 등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싶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비상용 사진 1매를 추가 준비해 두면 좋다.

추가로 고려할 만한 물품으로 흑색

연필, 지우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이 있다. 수험장에 가져가면 안 되는 물품인 휴대 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 소지는 조심해야 한다. 시계의 경우 ‘아날로그’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올해 또한 코로나로 인한 방역절차가 추가되므로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할 필요 있다”고 당부했다.

◆나도 모르는 ‘부정행위’에도 유의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44건 등이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의 부정행위 비율 가장 높은 만큼 규칙 엄수가 요구된다. 앞서 말한 휴대 가능 및 불가 물품, 반입금지 물품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4교시 응시 방법 위반도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 뒤야 한다고 말했다. 4교시 탐구영역은 수험표 및 책상 스티커에 기재된 선택과목 응시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골라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때 수험생들은 제1 선택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에 올려두고,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는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거나 순서를 바꿔서 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풀다 적발되거나,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제1 선택과목 답안을 수정하다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된다.

◆2023학년도 수능 주요 포인트는?

종료학원은 수능을 앞두고 과목별 주요 포인트를 점검했다.

국어영역은 금년도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 불규칙한 난이도를 보였기 때문에 본수능에서 9월 모평보다 어렵게 출제될 시 수험생에게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45문항 중 선택과목 11문제를 초반에 얼마나 잘 푸는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수학영역은 금년도 평가원 모의고사 패턴으로 출제될 시 큰 혼란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학 중간 난이도 문제에서 시간 압박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다.

영어영역의 9월 모평은 1등급이 16.0%로 사실상 물수능에 가까웠다. 본수능에서는 9월 모평보다 얼마만큼 어렵게 출제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4교시 탐구과목의 경우 결시율 상당히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결시율이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탐구과목에 임하는 수험생들은 현장 고사실에서 결시가 눈에 띄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임하는 멘탈관리가 중요하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는 15일 “수능에는 오답이 있지만 인생에는 오답이 없다”며 “어떤 결과든 더 나은 길로 가는 기회라 믿고 꿈의 바다를 향해 힘차게 뜻을 올릴길 바란다”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과기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선정

중기부, 주관대학으로 선정하고 학과 운영비용·등록금 등 지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지난 11일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주관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은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

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과기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에 학과 운영 비용(연간 약 7000만원)을 지원하고, 계약학과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85~100%)를 지원하게 된다.

서울과기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는 향후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반도체 분

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한편, 지능형반도체공학과가 소속돼 있는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은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편을 대응하고 신기술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한 단과대학이다. 정부의 미래인재양성정책에 따라 2021년 신설한 인공지능융합학과와 2022년 신설한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 융합학과 등으로 이뤄진 첨단학문 분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신하은 기자



제4회 한국비교과교육협의회 심포지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향대

‘한국비교과교육협의회 심포지엄’ 성료

순천향대 비교과 교육사례 등 공유

순천향대학교는 15일 교내 유니토피아관 석경홀에서 ‘제4회 한국비교과교육협의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대학의 경쟁력, 비교과로 답하다!’를 주제로 70여 개 대학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해 비교과를 통해 미래사회 필요 역량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간 비교과 교육 운영사례 공유 등을 통해 대학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재필 교학부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민태 EBS 지식글로벌부장의 기초 강연으로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의 길’ ▲문희경 교수(원광대학교)의 정책연구인 ‘학생성장 지원을 위한 비교과 공유 협력’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서 ▲대학별 비교과 지원 조직 유형 분석 및 비교과 교육 발전 방향 탐

색(건양대 류수진 교수) ▲비교과 통합 홍보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K대학교 WEEK을 중심으로(계명대 손화정 교수)’ ▲점에서 선으로, 면에서 점으로 ‘학생성장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사례(한국해양대 김연 교수)’ ▲디지털 뱃지와 비교과 프로그램(성균관대 배상훈 교수, 박진희 연구원) 등 4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기조 강연을 진행한 김민태 부장은 정치·경제·과학·인문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한 강연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를 언급했다. 비교과·교양 프로그램 기획 배경과 실행 과정, 그리고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면서 글로벌 교양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필 교학부총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비교과 교육과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최유리 삼육대 겸임교수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삼육대학교 대학원은 최유리 통합예술학과 겸임교수의 연구 논문이 SSCI 등재 학술지인 ‘BMC 사이콜로지(BMC Psychology)’에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최 교수의 논문 제목은 ‘온라인 콘텐츠 불법사용에 대한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의 유용성 검증: 성과기대 및 사회적 태만의 역할을 중심으로’이다.

최 교수는 지도교수인 서경현 교수와 함께 대학생들의 불법 온라인 콘텐츠 사용을 예측하는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을 검증하고, 그 모형을 성과기대와 사회적 태만이 조절하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상명대, 美 캔자스대학과 교육·연구 ‘맞손’

공동연구·상호 초청 등 교류하기로

상명대학교는 미국 캔자스대학(University of Kansas)과 교육과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4일 오전, 미국 캔자스주에 있는 캔자스대학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Douglas A. Girod 캔자스대학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와 홍성태 상명대 총장, 홍영준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상명대와 캔자스대학은 ▲공동연구 및 교육 ▲학술자료 교환 ▲강의, 방문 및 경험 공유를 위한 학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상호 초청 등

교육과 연구를 위한 상호 지원과 교류 등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캔자스대학은 1865년 설립됐으며 ▲특수교육학 ▲도시경영 ▲도시정책 등의 분야에서 미국 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학원 수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가을 기준 2만7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홍성태 총장은 “이번 미국 명문대학과의 교류는 상명대가 글로벌 대학으로서 영역을 확장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해외 선진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